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5 AUGUST

Vol.124



의성초등학교 남여 컬링팀,  
국가대표 끝나무 되다



# 《따뜻한 행복학교, 영천초등학교》 행복 사진 콘테스트



우리 많이 닮았나요?



사진 찍기 부끄러운 우리~!



아~ 무슨 냄새야?



햇살을 닮은 너, 사랑한다!



즐거운 우리 넷! 소중한 우리 가족!



친구야~! 즐길 준비 됐나?

삶의 힘을 키우는

# 따뜻한 경북교육



## 표지이야기

의성초등학교 남녀 컬링팀 2년 연속,  
국가대표 꿈나무 되다

발행일 2025. 8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중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강희구  
편집 주무관 서옥란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대성광고기획 053)812-2777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seokok7@gbe.kr ☎ 054)805-3063

## 경북교육 꾸미기

경북 직업교육박람회, 'Go Together'	04
진학 고민?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에서 답을 찾다!	06
경북 청소년, SDGs로 지구촌과 연결되다	08
광복 80주년, 사제동행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걷다	10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여는 새로운 감사 시대	12

## 교육현장 이야기

유·초·중·고 교육현장 이야기	14
------------------	----

## 경북체육 뽐내기

포은초 오하은, 전국소년체전 멀리뛰기 금메달	16
정평초 장채윤, 전국 양궁대회 개인종합 금메달 쾌거	
사동중, 전국 4인제 배구대회 첫 출전 우승 쾌거	17
'투포환 천재' 박시훈, 고등부 한국 기록 경신	

## 공감 더하기

구미문성초, 책 쓰는 교육가족입니다	18
단디짜꿍 은새와 함께한 간사이의 여름	20
따뜻한 경북교육, 베트남과 잇다	22
매주 열리는 꿈의 무대, 황남버스킹	24
학교도서관, 시시대의 배움터로 진화하다	26

## 생생정보 나누기

예술과 관람객을 잇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28
폭염 속 건강 지키기	30
쉬운 우리말로 알아보는 휴가 용어	31

	YouTube	경상북도교육청 맛꿀맛꿀TV	
	Instagram	경상북도교육청	
	NAVER 블로그	경상북도교육청	
	facebook	경상북도교육청	

# 경북 직업교육 박람회, 'Go Together'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구미컨벤션센터(GUMICO)에서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북직업교육'을 주제로 한 '2025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Go Together'가 열려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도내 직업계고 55교, 특수학교 8교, 중학교 재학생들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박람회'로, 지역 기업과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진정한 '함께하는 직업교육 축제'를 만들었다.

- 안동시**
- 경북하이텍고등학교
  - 예일메디텍고등학교
  -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 문경시**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 문경공업고등학교

- 상주시**
-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
  - 상산전자고등학교
  - 상주공업고등학교
  -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 경북소
- 의성

- 구미시**
-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구미정보고등학교
  - 금오공업고등학교

박람회 현장 1층에는 직업교육홍보관과 해외 우수 유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우수유학생관', 그리고 졸업 후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취업 졸업생들이 참여한 '글로벌취업관'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2층에서는 도내 직업계고와 특수학교 홍보 부스들이 각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3층에선 32개 기업이 8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을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지원했다.





진학 고민?

#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에서 답을 찾다!



한여름의 더위도 막을 수 없던 진학 열기! 지난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에 경북 도내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13,5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북진학지원센터가 운영한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이제 경북을 대표하는 진학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64개 대학과 관계 기관이 참가해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했으며, 실질적인 컨설팅과 현장 강의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 1:1 맞춤형 상담으로 ‘나만의 입시 전략’을 세우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대학별 맞춤형 상담 부스는 물론, 학생부종합전형부터 수능 중심 전형까지 자신이 원하는 전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현직 교사와 함께하는 1:1 대입 상담 코너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고3 학생 600여 명이 참여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들고 직접 상담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 유형과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일부 학생은 관심 학과의 교과 반영 비율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꼼꼼히 비교해 가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다.



## 고1·2도 함께하는 진학 탐색의 장

이번 박람회의 눈에 띄는 점은 ‘고1·2 전용관’이 운영됐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대입 환경 속에서 조기에 진로와 학과를 탐색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2027·2028 대입전형의 이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략’ 등 주제별 특강뿐만 아니라, 대학생 멘토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실질적인 진학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학과별 멘토-멘티관’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 수능 등급 UP, 전략이 답이다

수능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람회에서는 수능 학습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수능 등급 UP 토크 콘서트'가 마련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현직 교사이자 수능 출제 및 검토에 참여한 강사진이 직접 나서 출제 경향, 고난도 문항 분석, 오답 유형 피하기 전략 등을 생생히 전달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학생 질문 중심의 쌍방향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문제풀이보다 중요한 게 사고방식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며 "수능이 막연한 시험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목표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진학.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

진학은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다. 정확한 정보,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더해질 때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



# 경북 청소년, SDGs로 지구촌과 연결되다

경북교육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 코모도호텔과 경주시 일원에서 ‘2025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 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감수성과 시민의식을 기르는 자리였다. 경북 지역 중·고등학생 70여 명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해외 청소년 70여 명이 참가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0~15') 종료 후, 2015년 9월 새로 공표된 목표로, 지속 가능한 인류 사회와 지구환경을 만들고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이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이며, 2015년 제70차 UN 총회 및 UN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SDGs 이행을 위해서 매년 3조 3,000억~4조 5,000억 달러(3,850조~5,88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며, 이는 전 세계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SDG를 기업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 '환경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



### APEC 미래 리더들과의 만남

22일에는 'Gyeongju, Here we Go!' 라는 주제로 APEC 미래 리더 워크숍이 열렸다. 청소년들은 전통 국악 체험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예정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경주엑스포대공원, 국립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팀 과제를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는 자세를 실천했다.

###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

23일 저녁에는 '글로벌 교류의 밤' 이 열려 참가자들은 각국의 문화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참가 청소년들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탐방하며 경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했다. 포럼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3일간의 활동을 통해 국제 감각과 시민의식을 함양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했다.

### SDGs로 하나되는 우리

23일에는 본격적인 SDGs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총 20개 팀이 SDGs 17개 목표 중 하나를 선택해 영어로 팀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와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도 참가했으며, 특히 베트남 유학생들은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지만 진심 어린 발표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세계시민교육 리포터' 시간이 마련되어, 경북 원어민 교사 4명이 각국의 SDGs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The Role of Yout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World(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쳐, SDGs 실현을 위한 청소년의 책임과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 운영학교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관들도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사제동행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걷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교육청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7월 27일(일), 경북교육청 옹비관에서 '2025 사제동행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출정식을 열고, 8월 2일(토)까지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에 나섰다. 순례단은 독립 유공자 후손,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역사에 관심이 많고 애국심을 실천하고 하는 도내 고등학생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과 인솔 교사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었다.

## ▶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순례단은 중국 상하이로 시작으로 자싱, 난징, 충칭까지 약 5,000km에 이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첫 여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지였던 상하이에서 시작되었다. 순례단은 신규식 선생의 초기 활동지인 남창로, 임시정부 청사 추정지인 하비로, 김동삼 선생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던 모이당 등을 방문해 임시정부 태동기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흥커우 공원(현 루쉰공원)과 항일 운동가들의 묘역인 만국공묘(현 송경령능원)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자싱에서는 김구 선생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머물렀던 김구 피난처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활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거주지를 직접 탐방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선열들의 결연한 의지와 고뇌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난징에서는 이제항 위안소, 난징대도살기념관을 찾아 전쟁과 식민 지배가 남긴 인권 유린의 비극적인 역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방문지인 충칭에서는 임시정부가 최종적으로 자리했던 연화지 청사, 광복군 총사령부 청사, 해방비 거리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가들의 고난과 헌신을 되새겼다. 그리고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던 역사적 사건을 상기하며, 인천공항에서 이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로 전체 일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였다.





### ▶ 사제동행, 함께 걷고 느끼는 역사

이번 순례는 단순한 해외 탐방이 아니다. '사제동행'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과 교사가 함께 걷고, 보고, 묵상하며 역사적 사실과 감정을 공감하는 여정이었다. 이는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역사 교육으로 전환하는 뜻깊은 시도이자,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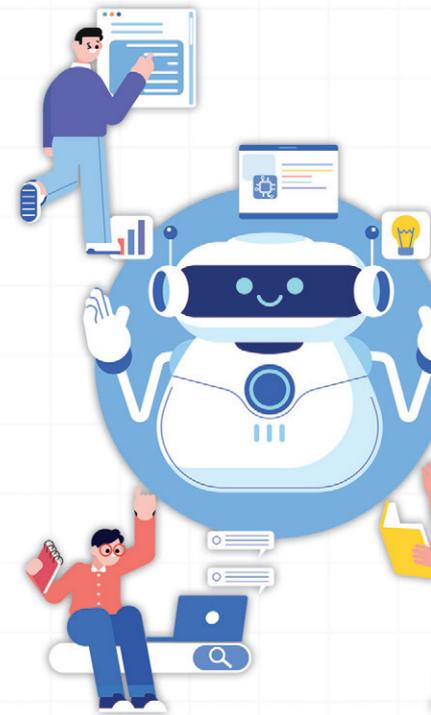
###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광복의 기쁨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값진 결실이다.

경북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부터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긴다. 그 경험이 학생들 마음속에 나라 사랑의 씨앗을 틔우고, 역사를 잊지 않는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책임감,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여는 새로운 감사 시대



우리는 지금 기술이 세상을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AI와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 체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 5대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oT

## 디지털 감사 체제란 무엇인가?

기존의 사후 점검 위주의 감사 방식을 탈피해 시나리오 기반 감사와 AI 분석, 데이터 자동 연계 등 구조적인 전환을 꾀한 것이 이번 디지털 감사 체제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감사 체제는 다음과 같이 3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 < 디지털 감사 체제의 3대 중점 과제 >

#### 시나리오 기반 디지털 감사

개별 사안 중심의 사이버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피감사자의 특정 행위를 시나리오로 상정하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사

- ▶ 회계, 예산, 재산, 학사 등 10개의 감사 시나리오, 5개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하여 6월부터 특정 감사에 활용 중

#### 감사 이력 관리 자동화

'감사아이'에 감사 이력을 등록하면 기관 누리집에 자동 연계

- ▶ 대국민 알 권리 충족, 업무 경감

#### AI 일상감사 2.0

경북교육청 제1호 특허인 AI 일상감사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데이터 제공과 결재 과정 일원화

- ▶ 이용자 편의성, AI 일상감사 지능 향상

### 지능형 종합감사시스템 '감사아이(GAMSAI)'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보안성을 문제로 수기로 관리되던 감사자료를 디지털화한 다음 인공지능(AI)으로 각종 통계, 최근 지적 동향, 기관별 감사 이력을 관리하고 다양한 검색 기능도 제공해 같은 지적 사항과 유사 사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함.

### AI - 일상감사시스템(2023년 특허 등록)란?

AI-일상감사시스템은 '감사아이'에 탑재된 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일상감사에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임. 일상감사를 위한 파일을 등록하면 스스로 주요 6가지 일상감사 항목(계약 방법, 계약상대자, 감사 결과 등)에 대해 관련 법률, 지침, 일상감사 사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함.

## 끊임없는 변화와 민관 협력의 확장

경북교육청은 민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 거래 정보를 확인해 잠자고 있던 포인트를 찾아 내 교육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는 기존 감사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점검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시도로 민간 협업을 통한 감사 사례로 향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디지털 감사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 및 검증, 시나리오 설계, 데이터 분석 지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를 조직하고,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감사의 미래, 경북에서 시작되다

경북교육청이 지향하는 디지털 감사 체제는 단순한 기술 도입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사 체계로의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경북교육청은 이 디지털 감사의 비결과 성과를 전국 교육청과 공유하며, 전국 단위의 데이터 기반 감사 체계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감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 4일간의 생존수영, 물놀이 안전의 첫걸음

김천유치원(원장 정현선)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만 5세 유아 25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했다. 아이들은 물에 떠서 나아가기, 얼굴 담그기, 구명조끼 착용법 등 단계별 활동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다.

활동에 참여한 햇살반 조00 유아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했으며, 백00 유아는 “구명조끼 입고 친구들이랑 등등 떠다니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라고 느낌을 이야기했다.



### 영천초, '행복을 담은 사진 콘테스트' 성황

영천초등학교(교장 권경희)는 '가족·친구·사제 간 행복 찾기'를 주제로 '행복을 담은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소중한 순간을 사진에 담았고, 우수작에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었다. 또한 전시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교장은 “이번 행사가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 금천중, '1일 발명 & 메이커 교실'에서 나만의 텀블러 제작

금천중학교(교장 김준배)는 지난 6월 10일, 1학년 학생들이 청도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1일 발명 & 메이커 교실'에 참여해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활동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구상한 디자인을 전사 프린팅 기술로 텀블러에 새기며 창작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텀블러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 이렇게 직접 만든 텀블러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천예술고, '제22회 실용음악 & 댄스 콘서트' 성황리에 마쳐

김천예술고등학교(교장 정희재)는 지난 6월 19일, 교내 정산아트홀에서 '제22회 실용음악 & 댄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실용음악, 스트리트댄스, 뮤지컬 등 총 10개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장르와 전공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과 탄탄한 구성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냈다. 특히 선후배가 함께 호흡을 맞춘 무대는 예술적 완성도는 물론, 김천예술고 특유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학생들은 공연 준비를 통해 예술가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배우며 한층 성장했고, 담당 교사와 교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포은초

**포은초 오하은,  
전국소년체전 멀리뛰기  
금메달!**

포은초등학교(교장 박우형) 6학년 오하은 학생이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에서 480cm를 기록해 멀리뛰기 금메달을 차지했다.



오 학생은 앞서 2024년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멀리뛰기 2위, 2025년 '제13회 춘계 전국 초등학교 육상대회'에서 453cm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실력을 보여 왔다.

오 학생은 "심적으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종덕, 이지선 코치 선생님들의 지도를 믿고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지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평초

**정평초 장채운,  
전국 양궁대회 개인종합  
금메달 래거!**

정평초등학교(교장 박현주) 6학년 장채운 학생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에서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 학생은 리커브 35m 부문에서 동메달, 25m에서 금메달, 2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총 5개의 메달을 수상했고, 종합 점수에서 1위로 개인종합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장채운 학생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 자신감이 붙어 기량이 더 잘 나오는 것 같다"라며,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동중

## 사동중, 전국 4인제 배구대회 첫 출전 우승 쾌거!

사동중학교(교장 이승연) 학교스포츠클럽 배구부가 6월 7일~8일 문경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전국 4인제 배구대회'에서 여자 15세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오른 사동중은 상대 팀의 거센 응원 속에서도 완성도 높은 팀워크와 집중력을 발휘해 전국을 제패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손00 학생은 "첫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너무 기뻐다."라며 팀워크의 힘을 강조했다. 페어플레이상을 받은 김00 학생은 "내 실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  
교육청

## '투포환 천재' 박시훈, 고등부 한국 기록 경신!

금오고등학교(교장 최달생)의 육상 포환던지기 유망주 박시훈 학생이 7월 7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 육상경기대회' 남자 고등부(6kg)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20m 21을 기록하며 우승과 함께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고등부 경기 역사상 처음으로 20m 벽을 돌파한 기록으로 한국 육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박시훈 학생은 지난 6월 22일 전국선수권대회에서도 19m 81을 던지며, 남자 고등부 신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불과 16일 만에 다시 한번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 박시훈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통틀어 무려 12차례 부별 신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시훈 학생은 경기 후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처음으로 20m를 넘겨 정말 기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1m도 넘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 구미문성초, 책 쓰는 교육가족입니다 }

박수경 / 구미문성초등학교 책 쓰는 교육가족 '소담 9기' 담당교사

## “책 쓰는 선생님”이 “책 쓰는 교육가족”이 되었다고!

2014년부터 매년 봄이면 시동아리를 꾸려왔다. 학생들은 분명 글쓰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시의 마법에 걸려 자꾸 시를 쓰게 된다. 그냥 내 이야기를 썼는데 시가 되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시가 되는 마법을 겪는다. 10년 차가 되던 2023년에는 “책 쓰는 선생님”이 되었지만, 2024년 학생들이 또 시동아리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책 쓰는 교육가족”이라는 사업명을 보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학생을 가운데에 두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가는 것!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시를 써서 세상에 나온 적 없는 새로운 책을 만들어보자. 3학년 대상으로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시를 쓸 여섯 가족을 선착순 모집했더니, 30분도 안 되어 마감되었다.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방방 뛰고 싶다.

## 책 쓰는 학생의 설레는 봄 이야기

봄이 왔다. 꼬마 시인들과 첫 만남을 위해 예쁜 시 공책과 필기도구를 샀다. 3월 24일, 우리는 처음 만났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20분부터 45분까지 비밀기지가 문을 연다.

4월에는 시 읽기만 한다. 선배들의 시집 『우리만의 비밀기지』, 『우리가 만든 또 다른 행성』을 읽고, 계절별 어린이 시 잡지 『올챙이 발가락』을 낭송하며 시와 친해진다. 이쯤 되면 아이들이 묻는다. “근데 우리, 시는 언제 써요?” 5월부터 본격적인 창작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수수께끼 시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제를 잡아 시를 쓰는 방법을 익힌다. “오늘은 뭐 쓰지?” 하며 맛있는 시, 무서운 시 등 아이들의 주문이 많아진다. 아직 모자란다. 우리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는 3시간 동시 교실이 열린다. 4월에는 동시 읽기와 손수건에 시 쓰기, 5월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전자책 만들기, 6월에는 시 퍼즐 놀이와 창작 활동으로 설레는 봄을 마무리했다.

### 책 쓰는 엄마와 아버지의 뜨거운 여름 이야기

여름이 오면 시인들에게는 본격적인 창작의 고통과 만나는 시간이 온다. 처음엔 하루에 세 편도 쓰던 아이들이 일주일 뒤엔 선생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올해는 이 창작의 고통을 부모님들도 함께하고 있다. 평소 자녀에게 숙제하라고 말하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시 쓰라는 잔소리를 듣는다며 하소연했다. 그래서 삼일문고에서 임수현 작가와의 만남을 마련했다. 작가님의 시작 노트를 듣고 10분 실습 시간에 첫 작품을 써 내려가며, 시를 쓰는 일이 조금 또렷해졌다.



### 책 쓰는 선생님의 땀나는 여름 이야기

7월이 왔다. 이제 선생님과 짝꿍 시를 써야 한다. 그동안 자기가 썼던 작품을 살펴보고 고르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시가 없으면 새롭게 한 편 쓰기도 한다. 써 온 시는 선생님과 다시 읽으며 다듬기 작업을 한다. 선생님은 어린이 시인들이 쓴 시를 함께 읽으면서 시에 담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었는지를 물어가며 시에 빠뜨린 이야기를 꼬집어낸다. 아침에 쓰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다시 쓴다. 다음 날 다시 선생님이랑 읽고 다듬기를 여러 차례! 드디어 시가 완성된다. 시가 완성되면 이제 시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릴 차례다.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테두리를 네임펜으로 진하게 그리고 어울리는 색연필로 정성껏 칠해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 하나도 대충할 수 없다. 그래도 시를 쓰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라 속속 잘도 그린다.



### 책 쓰는 교육가족이 그려 갈 가을, 겨울 이야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만 남았다. 시집 제목 정하기와 표지 작업! 열두 어린이 시인이 의논해서 제목을 정하고, 원하는 가족은 표지 공모전에 도전한다. 당선되면 책 날개에 "표지 그림 000"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다.

가을은 기다림의 계절이다. 각자 마음속에 시를 예쁘게 담으며, 시 그림책 만들기, 유리병에 담은 작은 시, 시 열쇠고리 등을 만들며 놀다 보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두 가족과 선생님이 함께 쓴 시가 책이 되어 나올 것이다.

2025년 겨울, 우리는 작가가 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든 작가는 "책 쓰는 교육가족"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가족에게 시를 읽으면서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 단디짜꿍

## 은새와 함께한 간사이의 여름

손미란 / (1기) 금오고등학교 교사

연일 폭염 경보 문자로 시끄럽던 여름 한가운데, 단디짜꿍 은새와 함께한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출발해 은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대구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은새는 진로 희망이 승무원인 학생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말마다 멀리 학원에 다니며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들떠 보였다.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관찰하는 모습 속에서, 그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 첫 코스인 고베로 향했다. 롯코산에 올라 고베와 오사카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과거 일본이 미국에 의해 개항되었을 당시 고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차이나타운(난킨마치)에서는 개항장에 정착해 살았던 중국인 상인과 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은새가 1학기에 동아시아사 수업을 들은 덕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더욱 의미 깊었다.

둘째 날, 아라시야마와 교토를 탐방했다. 한국보다 더한 더위에 지쳤지만, 시원한 대나무숲인 치쿠린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노노미야신사에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북이 바위에 손을 얹고, 은새가 늘 행복하길 빌었다.





식사를 마치고 '일본의 대구'라 불릴 정도로 무더운 고토로 이동해 과거 운동주가 유학했던 도시샤 대학을 방문했다. 운동주 시비에 현화하며 조용히 시인을 기렸다. 그때 문득 영화 『동주』 속 운동주가 <쉽게 씌어진 시>를 읊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라를 빼앗긴 채 남의 나라 육첩방에서 시로 저항했던 시인, 스스로는 부끄러워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자부심이 된 시인 운동주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이후 청수사를 둘러본 뒤 오사카 시내로 향했다.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를 거닐며 기념품을 고르는 시간도 가졌다. 오사카의 대표 음식인 타코야키를 먹은 뒤, 은새와 나는 여행 전부터 계획했던 양산과 문구류를 사기 위해 함께 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 11층까지 가서 서로 양산도 골라주고 기념품도 사며 구경하다 모임 시간이 임박해 내려가는 그때! 에스컬레이터가 10층에서 연결되지 않아 내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은새가 "선생님, 여기예요!"라며 나를 이끌어주었다. 그 순간 어찌나 든든하던지. 은새는 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단디짜꿍이었다.

셋째 날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나도 은새도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주로 눈으로 구경하고 시원한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고백해 버렸다. 이번 여행을 통해 네가 더 좋아졌다고, 정말 진심이었다. 뻑뻑한 일정과 폭염에 지칠 만도 한데 "관찰해요, 오히려 좋아요."라며 밝게 말하던 모습, 더운 날씨 속에서도 내 컨디션을 먼저 걱정해 주던 그 따뜻함이 참 예뻐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나를 위해 "선생님, 잘 챙기셨어요?"라고 다시 확인하던 세심함도, 어느 순간엔 나보

다 더 어른스러운 은새의 모습이 기특하고, 또 좋았다. 이제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밀려왔다. 고백(?)을 들은 은새는 환하게 웃었다.

마지막 날에는 나라 지역과 오사카성을 둘러보고, 시내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며 은새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도 알게 되었고, 학교생활 이야기부터 연애 상담, 육아 이야기까지 두런두런 나누며 자잘한 생활의 조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알고 지냈지만, 이 짧은 여행에서 나는 대화와 시간이 훨씬 깊고 밀도 있는 만남이었다.

승무원을 꿈꾸며 세계의 여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은새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나. 꼼꼼하고 섬세한 은새와 약간 허당인 나. 우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단디짜꿍이었다. 이 소중한 여행을 통해, 은새와 더 가까워졌고 진심을 나누며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은새와 함께한 소중한 여름 방학한 페이지가 지나간다.





# 따뜻한 경북교육, 베트남과 있다

박정원 / 호찌민시한국교육원

## 새로운 시작,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다

2024년 5월, '한국어교육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 한국교육원 파견 계획' 공문을 보고 설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막연하게 품어왔던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꿈이 감사하게도 현실이 되었고, 2024년 7월 1일 경북교육청에서 부여한 2년간의 호찌민시한국교육원 파견 발령으로 드디어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 적응,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떠한 기쁨도 등에는 고통을 업고 있다' 라는 격언처럼, 파견 생활 한 달 만에 피부염과 체중감소, 동반 자녀들의 적응 문제 등으로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동료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생활과 건강은 곧 회복되었다.

뜨거운 날씨 속 거센 빗줄기, 난생처음 마주치는 벌레들, 도시의 벽화처럼 벽에 붙어 있는 수많은 도마뱀들, 길거리의 혼잡한 오토바이 행렬은 이제는 친숙한 일상이 되었다.

현지의 철저한 행정 절차, 상이한 언어와 행동 문화, 달라와 현지 화폐가 혼용되는 회계시스템 등 국제교류 업무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 익힌 노하우와 교육원 동료들과의 협업이 생소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긴장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관점이 아닌 베트남 현지인의 시선과 행정 체계 속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 혹시 우리 국익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국제교류 활동, 따뜻한 경북교육을 베트남에 연결하다

교육원에서 내가 맡은 주요 업무는 경북교육청과 호찌민 시교육청 소속 학교 간 매칭 및 온오프라인 상호 교류다. 여기에 더해 교육원의 고유 업무인 행정, 예산, 한국어 교육 확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업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호찌민시 학생들과 교원을 인솔해 '경북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이 열린 경주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한국 방문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경북교육청이 준비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경북의 교육, 역사, 문화를 배우고, 국제교류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 내내 참가자들이 연신 고마움을 표현할 때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

같은 시기, '경북교육 정책을 베트남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떠오른 것이 바로 독도였다. 담당 장학사님께 연락드리니, 마침 독도학교 외국인 수료자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하셨다. 이에 '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 홍보 포스터와 각종 자료를 제작해 누리집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독도학교를 이수한 베트남인들에게는 경북교육청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도 제공하였다. 적극적인 홍보 덕분인지 두 달여 만에 베트남 수료자가 50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 경북글로벌교류단 65명이 호찌민시의 4개 학교를 방문해 공동 교육 교류 행사를 열었다. '외국인 교육 활동 및 체험활동 관리 강화 정책'을 시행 중인 호찌민에서 해외 교류단이 현지 학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해 행사의 취지와 상호 이익이 되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했으며,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는 등 공동 프로그램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동료들과 함께 밤낮, 주말 없이 두 달여 간을 준비했지만,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힘듦은 단번에 잊혀졌다.

올해 6월에는 베트남 현지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사랑 쇼츠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10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12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는 "공모전 참여를 통해 독도뿐만 아니라 경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내레이션을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는 소감을 전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게 했다.

## 따뜻함, 삶의 힘을 키우다

요즘은 8월 교육원에서 실시될 경북교육청의 '현지 한국어 교사 연수'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낯선 환경과 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분명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글로벌교류단 총괄 책임자로 오셔서 따뜻한 포용으로 격려해 주신 백희옥 정책국장님, 안부 연락으로 늘 힘을 주시는 행복교육지원과 유진선 과장님, 파견 업무를 꼼꼼히 지원해 주시는 허종운 장학사님, 회계시스템이 미비한 교육원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에 시간을 아끼지 않은 총무과 정현석 주무관님 등 경북교육청의 따뜻한 응원은 베트남 파견 생활에 큰 힘이 되어준다.

지난 금요일, 캄보디아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사업' 서류를 검토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행정직원 타오 씨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실장님, 썬영 씨가 힘내시라고 한국 노래를 불렀어요. 듣고 힘내세요."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따뜻함이 이곳 베트남에도 연결된 듯하다. 파견근무로 인한 나의 성장이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 되는 연결의 한 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담대한 걸음을 내디딘다.



# 매주 열리는 꿈의 무대, 황남버스킹

신장우 / 황남초등학교 교사



황남초등학교 2층 복도를 걷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공간이 있다. 이 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자리가 괜스레 눈에 들어왔다. 간판도, 화려한 장식도 없지만, 어쩐지 시선이 머물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천장엔 조명이 달려 있었고,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뻘하지 않은 FUN FUN 콘서트”

그제야 이곳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방송 업무를 맡고서야 그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바로 ‘황남버스킹장’, 아이들의 꿈과 끼가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이 무대는 매주 목요일 아침, 아이들의 끼와 재능으로 가득 찬다. 버스킹은 매년 3월, 봄이 오면 참가 신청자를 받으며 시작된다.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가 공연 참가 신청

하면, 담당 선생님과 방송부가 함께 공연 순서를 짜고 준비를 돕는다.

이렇게 열린 무대는 매주 새로운 얼굴과 이야기로 채워진다. 어느 날은 기타를 든 아이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날에는 친구들과 호흡을 맞춘 댄스가 펼쳐진다. 태권도 품새를 힘차게 선보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가야금과 리코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날도 있다. 줄넘기 모기를 보여주는 아이도 있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무대도 펼쳐진다.

황남버스킹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공감’의 무대라는 점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무대에서 자유롭게 펼치고, 친구들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응원한다. 박수와 환호는 또 다른 친구들의 용기가 되어 돌아온다.



이번 주 무대에서는 춤과 노래가, 다음 주에는 태권도와 악기가 무대를 채운다. 같은 공간이지만 무대에 오르는 친구가 다르고, 준비한 내용이 다르기에 늘 새로운 분위기다. 그래서 보는 친구들도 매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처음엔 떨려서 무대에 서지 못했던 아이도 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박수와 환호를 듣고 나면, 다음에는 꼭 서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긴다.

“다음에는 친구랑 합주해 볼래요.”,  
“한 번 더 나가고 싶어요.”

이런 소박한 다짐들이 모여 황남버스킹의 무대는 더 풍성해진다. 이 무대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하다.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방송부 친구들은 누구보다 분주하다. 카메라를 챙기고, 촬영 각도를 고민하며, 마이크와 조명까지 꼼꼼히 점검한다. 무대에 선 친구들의 모습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다. 촬영이 끝나면 담당 선생님이 영상을 편집한다.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더하며, 때론 느린 화면으로 친구들의 미소를 한층 따뜻하게 담아낸다.

이 과정에서 방송부 친구들도 함께 성장한다. 어떤 앵글과 구도가 좋은지 고민하며 촬영하고, 편집 기술을 하나씩 배워간다. 그들의 손끝에서 완성된 영상은 모두의 추억이자 학교의 기록이 된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다시 그 영상을 본다면, 그날의 떨림과 설렘이 고스란히 떠오를 것이다.



완성된 영상은 공연이 있던 다음 주 수요일, 교내 방송을 통해 전 교실로 송출된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영상을 보며 그날의 공연을 떠올린다. 숨죽이며 지켜보다가도, 어느새 박수와 웃음이 터진다. 영상 속 친구들의 모습에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 순간만큼은 교실도 공연장처럼 들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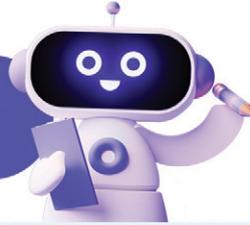
### 황남버스킹.

그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자신의 꿈과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는 시간이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래서 황남초의 이 작은 무대는 언제나 크고 따뜻하다. 무대는 비어 있어도, 그 안에는 늘 다음 무대를 꿈꾸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 학교도서관, AI 시대의 배움터로 진화하다

박진숙 /  
구미신평중학교 사서교사



## 미래를 향한 학교도서관의 고민과 도전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학생들은 이제 책보다 짧은 영상과 즉각적인 미디어에 더 익숙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교도서관은 여전히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관련 수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특히 학생들이 점점 책에서 멀어지고, 문해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단순한 자료실의 기능을 넘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문해력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기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학생들의 독서 의욕 저하와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학생 주도형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생성형 AI, 그림책으로 피어나는 상상력

구미신평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시간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책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서토론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1단계: 준비

학생들은 30여 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그림책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달소리 표를 활용해 미디어 관련 단어를 정리하고, 각자의 미디어 맵을 완성했으며, 건강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다짐도 함께 나눴다. 이후 생성형 AI 툴에 접속하고 가입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 2단계: 아이디어 구상

브레인라이팅 활동을 통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글감을 정리했다. 생성형 AI(Chat GPT, 뮌튼,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주제를 탐색하고, 다양한 미디어(인쇄자료, 온라인자료, SNS 등)를 참고하며 모둠별 독서토론을 이어갔다.



### 3단계: 레이아웃 기획

지속적인 모듈별 토론을 통해 그림책의 주인공과 제목을 정하고, 출간 기획서를 작성했다. 주제와 독자층을 설정하고 필요한 미디어 요소도 함께 결정했다. 그림책 표지 도안을 그리고 썸네일을 제작해 그림책의 구성과 흐름을 정리했다.

### 4단계: 실전 제작

생성형 AI의 활용법을 익힌 후,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그림 자료를 생성하고 내용에 맞춰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스냅스를 활용하여 그림을 삽입하고, 폰트와 레이아웃을 조정해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 5단계: 완성 및 전시

최종 수정과 피드백을 거친 후 그림책 제작(스냅스 활용)을 의뢰하고 완성된 그림책은 학교도서관에 전시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난구멍', '놀이터를 찾아서', '왜 다를까?', '배드의 하루' 등 4권의 그림책이 탄생했다.



놀이터를 찾아서



배드의 하루



왜 다를까?



이 다섯 단계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AI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깊이 있는 독서와 창작의 기쁨을 함께 경험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문해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은 물론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까지 자연스럽게 길러졌다.

이러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구미신평중학교는 2024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학교도서관 부문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제61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전국에서 단 7개 학교도서관에만 주어졌으며, 학생 중심의 도서관 교육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 변화하는 학교도서관, 학생들의 역량을 깨우다

사서교사의 깊은 고민은 학생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독서 경험을 실제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은 독서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특히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전시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은 다채롭고 융합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속 지식을 삶의 지혜로 연결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을 넘어 학생 중심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거듭나고 미래 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예술과 관람객을 잇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신혜정 전시해설사



## Q 도슨트란 어떤 직업인가요?

도슨트는 라틴어 'docere(가르치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전시 해설가를 말합니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를 잇는 통역자이자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큐레이터와 도슨트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두 직업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큐레이터는 보통 '학예사'로 불리며 미술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 기획, 작가 섭외, 전시 운영 등 전시 전반을 기획하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도슨트는 '전시 해설가'로 불리며 전시회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관람객을 직접 만나 전시 작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 Q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슨트 관련 전공을 이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 작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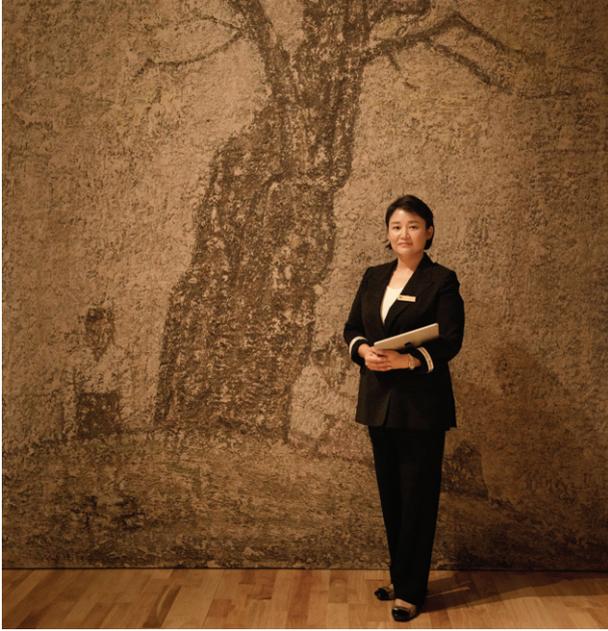
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슨트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첫 번째, 도슨트 양성 교육 과정 이수하기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시립미술관, 문화재단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문 도슨트 양성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4~10주간 교육받은 후 스터디, 작품 스크립트 작성, 시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시민 도슨트', '청년 도슨트', '문화 해설사'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관심 있는 기관의 누리집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 두 번째, 관련 분야 기초지식 쌓기

반드시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미술사, 역사,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면 도슨트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양 강의나 온오프라인 공개강좌에 참여하거나 관련 도서나 도록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와 실습 경험 쌓기**

지역 축제, 기획전, 예술제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아보세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많을 수록 전문 도슨트나 문화 기획 분야로의 길도 더 넓어지겠죠? 전문 도슨트나 문화 기획 분야로의 길도 더 넓어지겠죠?

**네 번째, 전문 자격증 취득하기**

도슨트 활동에 필수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교육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각 지자체), 큐레이터 과정 수료 등도 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유용합니다.

**마지막, 전시와 예술을 즐기는 마음 갖기**

도슨트는 지속적인 자기 학습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새로운 전시가 열릴 때마다 직접 관람하고, 작가나 작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조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Q 도슨트는 어떤 장소에서, 하루에 얼마나 일하나요?**

도슨트는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전시 규모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2~3회 정도 해설을 진행하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등 정해진 시간대에 이루어집니다. 한 회당 해설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기관의 고용 형태에 따라 하루 종일 상주하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도슨트가 많은 편입니다.

**Q 직업으로서 도슨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관람객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작품에 얽힌 이야기, 배경 그리고 작가의 의도까지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스타 도슨트들이 해설하는 전시회를 따라 다니는 열성팬이 생겼을 정도예요. 앞으로 도슨트는 '예술과 작품의 결을 전달하는 전문 통역자'로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폭염! 속 건강 지키기

(열 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요령)

## 1.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조절 기능이 저하되거나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 2.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구분	주요증상	응급조치 방법
열사병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C)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 빠르고 강한 맥박, 빈맥, 빈호흡, 저혈압 · 심한 두통, 어지럼증(현기증), 메스꺼움, 오한	·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합니다.
열탈진	·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40°C)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근육 경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어지럼증(현기증)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열경련	· 근육 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합니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 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럼증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둡니다.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열발진 /땀띠	·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발진용 분말 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일광화상	· 아프고 붉고 따가운 피부, 피부의 물집	· 일광화상이 나올 때까지 햇볕을 피하세요. · 햇볕에 탄 부위는 시원한 천을 대거나 찬물로 목욕하세요. · 일광화상 부위에 보습 연고를 사용합니다. · 물집을 터트리지 마세요.

※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수분 보충으로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

자료 출처: 질병관리청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신장, 심장,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 넓은 모자, 토시 등)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 오후 5시)에는 야외 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매일 기온,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 자동차 안, 밀폐 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쉬운 우리말로 알아보는

# 여름 휴가 속 우리말

바캉스	휴가, 여름 휴가
파크기간	집중 기간
라이프 가드	안전 요원
선베드	일광욕 의자
해먹	그물 침대
오션 뷰	바다 전망

\*자료 출처: 국어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누리집 '쉬운 우리말을 쓰자'



경북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

▶ 기간: 2025. 10. 26.(일) ~ 10. 28.(화)

※ 25일 전야제 별도

▶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일원

---

**APEC 2025 KOREA와 함께 합니다.**